

## 저가항공사 이지젯, 초저가 식품으로 식품시장 공략

### -전제품 25p 판매, 개장 다음날 완판, 6 시간 줄서-

이지젯 항공사의 창립자인 Sir Stelios Haji-Ioannou 경이 항공기, 버스, 호텔, 모바일 등에 이어 이제는 거품없는 가격의 식품점 이지푸드 스토어(easyFoodstore)를 지난 2 월 2 일 런칭했다.

런던에 파일럿 매장으로 오픈한 이 매장은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식품과 음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, 특히 개장한 2 월 한달 동안은 모든 제품을 25 페니(약 5 백원정도)에 판매한다.

런던 의 북서쪽 파크로얄(Park loyal) 지역에 첫 문을 연 파일럿 매장은 문을 열자마자 다음날인 3 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 제품이 완판되었고, 공급업자도 이튿날까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이틀 후인 5 일 다시 문을 열어 정상영업을 하고 있지만, 홈페이지를 통해 손님들의 줄이 길다고 공지하고 있다. 데일리메일(Dailymail)지는 매장에 들어가는 데만 6 시간이 걸린다고 보도했다.

판매 제품은 총 76 가지로 면 스낵(Noodle Snack), 닭고기 피자, 봄베이믹스(인도식 과자), 밀가루, 쌀, 감자, 물, 식물성 기름 등이 포함된다.



Figure 1 이지푸드스토어 매장전경 (출처-  
[foodmanufacture.co.uk](http://foodmanufacture.co.uk))



Figure 2 이지푸드스토어 매장전경 (출처-  
Easyfoodstore 홈페이지)

이지푸드스토어에서는 양송이버섯, 붉은 강낭콩, 복숭아 통조림 등의 보존기간이 긴 청과물을 포함해 오렌지쥬스, 오렌지에이드, 커피와 차류 등의 음료 등도 판매한다. 매장 내에는 [비싼 브랜드 없음, 그저 정직하게 가격 책정된 식품이 있음]이라는 홍보문구가 있다.

Haji-lonnou 는 저가 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3 년 전부터 계획,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에서 식품자선구호단체에서 경험을 쌓았다. 이지푸드스토어는 알디(Aldi)와 리들( Lidl) 등 초저가 식품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, 또한 영국 내 4 대 유통체인인 테스코(Tesco), 아스다(Asda), 세인즈버리(Sainsbury), 모리슨즈(Morrisons) 거대 경쟁자들도 서서히 가격 인하 를 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위협요소를 피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. 또한 온라인 선호 등 식품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등 여러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.



Figure 3 재고가 바닥난 이지푸드스토어의 모습 (출처-The guardian)



Figure 4 이지푸드스토어의 홍보물

## 시사점

영국은 글루텐 프리, 오가닉 제품 등 웃돈을 주고도 몸에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 상당한 유행인 반면, 한편에서는 25p 에 줄을 서는 모습이 이중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. 이는 식품유통업체들은 타겟 소비자층이 세분화 되어 있고, 그에 맞는 상품 및 가격을 전략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. 한국식품의 영국 내 유통망을 선택 시 타겟 소비자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먼저 살펴 적절한 곳에 입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## 출처

<http://www.foodmanufacture.co.uk/Business-News/New-discount-food-store-from-EasyJet-founder?nocount>

<http://easyfoodstore.com/>

<http://www.dailymail.co.uk/news/article-3435274/easyFoodstore-items-cost-25p-reopens-BOUNCERS-order-customers-queuing-SIX-hours-inside.html>